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

남북 평화관광을 이루는 길



일 시

2021. 6. 15.(화), 15:00~17:00

장 소

서울관광플라자 4층 다목적홀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주최/주관

국회의원 이용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남북평화관광협의회

후원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개회사

반갑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국회의원입니다.

21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은 처음으로 만나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단원의 막을 열었습니다. 통일로 함께 나아가자는 비전 아래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됐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었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굳건했던 약속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2018년 평화의 봄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탄력을 받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더 진전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오늘 평화를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여러 성과 중 하나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는 남과 북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대화와 협력, 관여를 지지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대화의 명분이 마련된 만큼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고 멈춰있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해 “남북 평화관광을 이루는 길”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던 지난 2008년의 교훈을 되새겨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고, 그 기반 위에서 상호 교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과 북의 교류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가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허락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야 하고 대북 제재 저촉 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 DMZ를 가려 해도 유엔사의 허락을 말아야 합니다. 그 굳어진 틀을 깨야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한 지속적인 남북관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정부 부처, 학계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주신 고견들이 정책과 실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축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남북 평화관광을 이루는 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국회 이용선 의원님과 함께해주신 업계, 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은 지난 2008년에 단절된 이후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듬해인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UN 대북제재도 유지되면서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며 남북 간 관광협력의 불씨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그 불씨를 키워 평화 관광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예산 약 270억 원을 투입해 국제적인 평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 환경부, 행안부, 국방부 등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올해 하반기에 ‘디엠지 평화의 길’ 10개 구간을 안전하게 재·개방하고, 내년에는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524km에 이르는 디엠지 횡단 걷기길 노선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교착상태의 남북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북한 개별 관광을 언급하셨듯이 이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의 여건들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 만큼,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남북 관광협력을 통해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여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세계 유일의 평화 관광지를 만들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 하 용

사단법인
남북평화관광협회의 회장

축사

관광은 평화로 가는 패스포트(Tourism, Passport to Peace)라고 합니다.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은 남북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체계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사)남북평화관광협의회는 남과 북의 관광협력 과제들을 민간차원에서 적극 발굴하고, 상호 관광주체 간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며, 평화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신 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지원하고자 출범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본 협의회는 남북관광 협력을 위한 포럼 개최는 물론, 남북 연계 유라시아 철도 관광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5개국(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연계 관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 구상,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 평화관광 특구 개발 연구, 남북평화관광개발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안 제언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사업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고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이번 <남북 평화관광을 이루는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 외교통상위 이용선 의원실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단한 연구, 토론, 교육, 사업개발, 제도개선, 인적 교류 협력 등 다양한 남북평화관광 사업 활동을 통해 동북아 관광중심국가로서 한반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남북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희의 뜻이 잘 전달되고, 아무쪼록 창의적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행사를 후원해주신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행사를 위해 온 마음을 다 바쳐 힘을 써주신 본 협의회 김호연 사무총장, 정혜진 연구위원, 그리고 이은지 박사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토론회 참여자 소개

구분	성함	직함
개회사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영상축사	이인영	통일부장관
서면축사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표	김형우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
좌장	진홍석	남북평화관광협의회 수석부회장
패널	정하용	남북평화관광협의회 회장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황방열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특임교수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

추진배경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평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현재 교착 상태임
- 북한 개별관광, 접경지역(DMZ, JSA) 관광 등의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

행사개요

- 행 사 명 |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평화 관광 정책 토론회
“남북 평화관광을 이루는 길”
- 주최/주관 | 국회의원 이용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남북평화관광협의회
- 후 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세부추진내용

- 주 제 | 발표 1 남북 평화관광 성사를 위한 조건들
발표 2 남북 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 진행방법 |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패널토론

남북 평화관광을 이루는 길

프로그램 구성

구분		내용	
15:00~15:05	5'	개회	진행순서 안내, 참석자 소개 (사회: 남북평화관광협의회 정혜진 연구위원)
15:05~15:10	5'	개회사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15:10~15:20	10'	축사	영상 축사 이인영 통일부장관 서면 축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회자 대독)
15:20~15:40	20'	발표 1	남북 평화관광 성사를 위한 조건들 (김형우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및 장애 요인들 ▶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관광의 모습은 무엇일까? ▶ 국민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과 남북교류, 통일을 위한 관광분야 ▶ DMZ 관광 유엔사 운영 관련 이슈와 해결 방안 등
15:40~16:00	20'	발표 2	남북 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 ▶ 성공적인 남북 평화관광을 위한 주체들 ▶ 남북평화, 통일을 위한 관광분야 민관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 능동적인 평화관광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16:00~16:40	40'	패널토론	(좌 장) 진홍석 남북평화관광협의회 수석부회장 (패널1) 정하용 남북평화관광협의회 회장 (패널2)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패널3)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사무총장 (패널4)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패널5) 황방열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특임교수 (전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16:40~16:55	15'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16:55~17:00	5'	폐회	마무리

발표 1 남북 평화관광 성사를 위한 조건들 ----- 9

발표 2 남북 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 31

남북 평화관광 성사를 위한 조건들

김형우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남북평화관광 성사를 위한 조건들



한반도 평화관광 성사를 위한 조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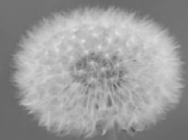
<목차>

1. 한반도 정세
2. 남북관광 교류 여건
3. 남북평화관광의 방법론
 - 1)우리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평화관광'
 - 2) 우리가 추구하는 '개별관광'
4. 향후 전망과 솔루션

한반도 정세



한반도 정세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 문재인 -바이든 한미 정상 5월 22일 워싱턴 회담

▶ 성과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에 동의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함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적 노력의 성과

★ 대한민국을 미래 글로벌 경제 파트너

→위상 업그레이드 ----기대 이상의 성과

(※우리 기업의 막대한 대미 투자 & 우리의 첨단 기술력-경제력& @)

한반도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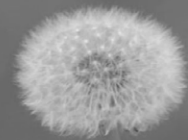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전향적 제안>

-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 ▲남북 대화와 협력 지지---우리의 협상 공간과 역할 확대
- ▲대북특별대표 임명
- ▲외교적 해법과 단계적 접근
- ▲인권 문제 거론----수위는 낮춰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반도 정세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북한이 호응하기에는 '2%' 부족?

→미국의 기류가 전보다 크게 완화됐지만 손에 잡히는 구체성은 없다.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고려 필요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면 그들의 요구인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해 응답 필요

◇적대시 정책

▲생존권(체제 안전)---한미연합훈련/ 인권 비판

▲발전권---제재 완화·해제 등

※미국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

→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한미 정상 공동성명

→ 한미훈련---트럼프 집권 시절 잠시 축소·유예 등 이미 양보

한반도 정세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 韓 북-미대화 '중재역' 재가동?

→미국은 남북 대화와 간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

→ "미국이 과거 우리의 대북정책을 승인했다고 해석하고 한 발짝 더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일각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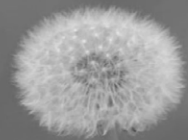
→남북대화 지지로 공간 열렸지만 제한적일 것

→ '대북제재 레짐'

=성역처럼 버티고 있다.

=남북의 자율 공간이 매우 제한적.

한반도 정세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 한계

◇미국의 일관된 입장 ----지금은 대북제재 중!!!!

◇"'한미 공조'에 따라야 한다"

=전가의 보도 '한미 공조' (이현령 비현령---한미워킹그룹 이상의 의미)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앞질러 나갈 수 있다? 없다?

★통일부장관의 2024 금강산 골프대회 지원 시사에 제동 걸고 나선 미국

◇'남북한 공동 2025년 세계골프선수권 대회 금강산 유치' 사업제안서

(6월 4일,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

→이인영 장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과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미국무부---지금은 대북 제재 중이다

"미국은 남북한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그러나 "동맹국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미 정부 대북전략의 핵심이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우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



●한반도 정세 브리핑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분위기 바뀐 것은 분명→ 변수는 북한

▶ 한반도 정세는 순풍으로---- 충분치 않고, 해법은 불확실

◇한국과 중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미국은 할 만큼 했다? 북한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과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지막 대북 공동 제안?

→그간 한국정부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한국 내 진보세력도 북한 지도부 행태 비판---'통미봉남'

---문재인 정부 '미국산 앵무새'라는 덕없는 비난 속에서도 대화협상위해 노력
 (싱가포르 공동성명, 판문점 선언---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

한반도 정세



●한반도 정세 브리핑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한-미, 싱가포르 복원에 北은 9.19로 화답 필요

◇김정은 총비서= 판문점과 싱가포르를 거쳐

하노이에서 결실을 보려 한 것은

영변 핵시설과 부분 제재해제의 교환.

- 북한 살라미식 해법, 단계적 해법 추구



한반도 정세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북한의 반응

▶북한 지난 22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체로 무반응

◇노동신문 1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인민의 고귀한 전통이다' ---제목의 기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내치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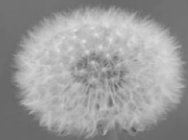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는 반발

◇과거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일정한 패턴 없었음

-- 그때마다 다양한 반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10차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다양

한반도 정세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미국

▶"북핵, 그랜드 바겐은 없다---공은 北에 넘어갔다"

=외교적 관여가 최선의 방법

---토니 블링컨美 국무장관

→※ 바이든 행정부

*지난달 말 대북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

북한 측에 이와 관련 접촉을 제안했다.

#북한 측은 "접촉 제안을 잘 받았다"는 반응

한반도 정세



◆5-22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중국

→중국 불쾌감 ---대만해협문제 거론

▶ 한미정상회담 비난

중국 정부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과 관련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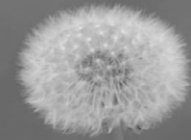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관광의 교류여건



<북한관광의 이해>

◆북한관광 정책의 변천

▶ 합영법 이전의 관광

=관광을 정치사상교육차원에서 추진.

견학, 답사 참관을 통한 체제에 대한 자부심, 우상화교육으로 활용

=주민들의 사상해이 경계---외부 문물, 사람 접촉 차단

=부족한 외화유출 방지

(*합영법= 1984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합영법'

→'관광에는 여행을 통한 구경-인식-휴양-연구-오락 같은 것이 포함된다')

@김정은 시대

- 주민복지차원의 관광으로 내수관광 활성화 추진

- 민심 얻기 위한 전략, 돈주들의 needs 충족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내국인을 주요 관광소비층으로 인식

한반도관광의 교류여건



<북한관광의 이해>

◆ 김정은 시대 북한관광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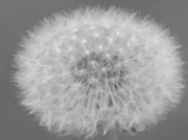
▲국제사회 제재를 피한 외화벌이

▲글로벌 스탠다드 한 인프라 지향

▲인민행복 증진(내수관광 활성화)

#한반도관광 추진-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요인

북한관광의 이해



<김정은 시대, 왜 관광인가? >

◆김정은 총비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스위스 유학 경험

=자본주의와 관광산업을 자연스럽게 이해

◇관광산업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

=실제 관광산업은 과거 폐쇄적이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쿠바)이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업

김정은 총비서는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벤치마킹

북한관광의 이해



<김정은 시대, 왜 관광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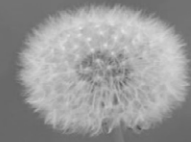
◆ 김정은 총비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사례>

◇ 원산 지구(갈마반도) 입지

"원산시를 중심으로 비행기로 3시간 거리 내에 베이징, 상해, 도쿄를 비롯하여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여러 개나 된다. 원산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항구들과 배길로 연결 되어 있으며, 원산시는 우리나라의 동해지구와 서해지구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분기점으로서 교통조건이 매우 편리하다."
"가까운 기간에 연간 100만 명 정도, 전망적으로 500만~1000만 명의 관광객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들어 올 것이다"

한반도관광의 교류여건



<달라진 상황1>

◆ G2 중국의 등장

- ▲ 한반도관광의 가장 큰 변수는 G2 중국의 등장
- ▲ 과거 남북교류는 우리만의 단독 플레이
- ▲ 중국인의 북한투자
- ▲ 북한 인바운드 관광의 90%가 중국 관광객
(#대거 방북= 2012년 중국 단체관광객 23만 명, 2017년 60만 명, 2019년 120만 명---평양,신의주, 라선 등 접경지역 관광)
#북경~평양행 국제 열차표 한 달 전 매진(코비드 상황 이전)
- 우리가 국제제재로 인한 유엔사의 통제를 받는 동안,
자유로운 중국은 약진 일로!!!
시간은 결코 우리 편만은 아니다

한반도관광의 교류여건



<달라진 상황2>

◆ 북한도 달라졌다

▲우리가 생각해 온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경제적 측면)

=스케일도 지향점에서도 글로벌 개혁 개방을 추진

▲북한 바로 알기가 필요

=이제 과거에 머무르려는 북한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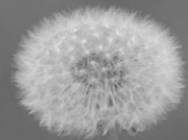
=원조를 통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국가, 그런 리더십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꿈일 것.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우리 지자체, 기업들이 새겨야 할 부분

▶교류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필연!!!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 한반도 평화관광(을지전망대)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 한반도 평화관광

◆ 평화관광이란?

▶ 평화관광(peace tourism)

'여러 형태의 관광을 통해 갈등과 분쟁 종식, 나아가 평화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 일련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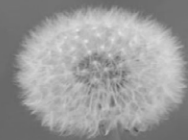
-분쟁 후 사회에서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화해,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평화구축에 기여한다(V.E. Ward, 2009).

◇ 평화관광의 형태

문화유산 방문, 분쟁관련 박물관 여행, 분쟁을 겪은 도시에 대한 역사의 재구성 등을 포함

국가, 국제기구, 관광업체, 지역주민 등 공적, 사적 영역의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복합 네트워크로 정의된다(Becken & Carmignani, 2016).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 한반도 평화관광시대

◆ 문재인 정부에서의 평화관광 탄생 배경

▶ 기존 평화관광= '안보관광', '생태관광', '군부대 방문' 등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자 교육의 현장.

2008년 7월 11일 故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금강산에서 일어나고,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금강산·개성관광 등 남북관광이 중단.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교류 정책이 우선시되고, 남북 정상간 신뢰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평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

→ 평화관광에 대한 개념

=평화를 염원하는 관광, 남북교류의 첫걸음,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화

=문재인 대통령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괴르버 재단 연설에서

'新 베를린 선언'을 발표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작성, 비정치적 민간교류 협력 지속,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DMZ 내 적대행위 중단 등의 제안은 한반도 평화관광 실현을 위한 첫 교두보.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 한반도 평화관광시대

▶구체적 구상

-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상: 관광, 어업 등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창출하고 이러한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정되는 공간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대를 포괄함
- ◇판문점 선언 제2조 제1항: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 판문점 선언 제2조 제2항: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판문점 선언에 이어, 2018년 9월'평양공동선언'제2조 제1항~제2항에서 평화관광 및 평화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되었다.
- 1.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연내) 실시
- 2.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조건 마련 시), 서해경제공동특구(파주, 개성, 황해도), 동해관광공동특구(속초, 양양~금강산~원산) 조성(추후 협의)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 한반도 평화관광시대

▶구체적 구상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구체화 되었고, DMZ 평화의 길 중 고성 루트가 개방되면서'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정책과제가 처음으로 실현.

@ '평화관광'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 '신한반도체제' 및 '평화경제'를 통한 통일 준비 목표 제시
 남북 도로·철도 연결, 평화협력지구 지정,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DMZ 평화관광>

◆ DMZ의 이해

▶ DMZ 주변 공간

◇ DMZ 일대는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 1954년 2월 美제8군단 사령관에 의해 별도의 민간인 통제선(CCL: civilian control Line)을 설정.

◇ 민간인 통제선은 민간인의 거주나 산업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제한하고 민간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구간.

= 군사분계선 남쪽 5~20km 구간으로, 면적은 1,528km²

▶ DMZ 및 DMZ 평화관광의 공간적 범위

◇ DMZ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그 인접지역까지 출입과 개발에 대한 강한 통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가해져 온 지역으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서 명기한 폭 4km(2kmX2)의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민통지역(5~20km X 2) 및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30~40km의 완충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관광공사-2019)

◇ 협의의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방 한계선 구역 내의 범위를 말하지만, 광의의 DMZ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 민간인 통제구역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25km 범위의 접경지역을 모두 포함한 구역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DMZ 평화관광>

◆ DMZ의 이해

▶ DMZ의 특수성 및 가치

◇ 1953년 한반도 군사정전 협정에 의해 형성된 이후로 한반도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 각종 체제 선전물, 대남-대북방송, 철조망, 감시초소, 대전차방벽 등은 역사적 자원

◇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한반도의 비극적인 역사와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냉전체제의 역사박물관

◇ 한반도를 횡단하는 동서생태축으로, 희귀 동식물의 안식처-자연생태계의 보고

◇ 통제된 상황에서의 독특한 관광분위기와 매력물(스릴, 호기심, 자유의 소중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곳

한반도 평화관광



<DMZ 평화관광>

◆ DMZ의 이해

▶ DMZ 평화관광의 필요성

◇ DMZ는 일제강점, 남북분단, 전쟁과 휴전선에서의 오랜 대치시기를 거쳐 온 다양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한반도 중부의 인문지리적 자원, 역사문화적 가치, 생활문화와 전통콘텐츠가 풍부한 곳임. 이 같은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야 함

◇ DMZ와 접경지역을 '협력-공생-연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역사-문화-생태의 포괄적 개념과 진정성을 반영한 관광 가치 창출이 필요.

◇ 남북한 협력과 공생의 공간이자 연결통로로, 한반도와 전 세계를 이어주는 평화관광의 관문으로 접근.

◇ 남북의 적대감을 확대·재생산하는 냉전시대의 논리를 넘어서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DMZ 평화관광'으로 그 콘텐츠를 살려가야 함.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DMZ 평화관광>

◆ DMZ의 이해

▶ DMZ 평화관광의 방향은?

◇ 현재 DMZ 관광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안보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음
=향후 'DMZ 평화관광'을 통해 한반도 냉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실현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을 구현해야 함

◇ 미래의 DMZ 평화관광은 DMZ가 보유한 역사, 생태, 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하여 평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으로 나가야 함.

◇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속에 녹아 있는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광으로 남북의 상호이해와 화해,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관광으로 추진 되어야 함

남북평화관광의 방법론



◆삼지연



남북평화관광의 방법론



<북한 개별관광>

- ▶ 우리 정부 → 2020년 부터 북한 개별관광 추진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북한 개별관광 필요성을 강조
 - "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 통일부 지난 해 1월 20일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공식화
- ▶ 북한 개별관광이란?
 -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 하는 것"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북한 개별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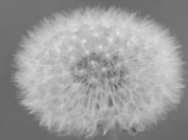
▶ 통일부 추진 북한 개별관광 3가지 형태

◇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개성-금강산 지역 방문

◇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 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관광 프로그램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북한 개별관광>

▶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개성-금강산 지역 방문

→ 인도적 차원 또는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개별 방북
= 현대아산의 개성·금강산관광 사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방안
= 관광 기반이 개성과 금강산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한
방안

→ 우리가 장 선호하는 방안

= 3국 경유가 아닌 남북 직접 관광 선호

= 단, 북한이 호응하고, UN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MDL)
통과 업무를 대행 받으면 가능

→ 북한과 특히 미국의 태도가 부정적

남북평화관광의 방법론



<북한 개별관광>

▶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 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중국 등 제3국 여행사 상품을 활용해 평양·양덕·원산갈마·삼지연 등의 지역을 관광하는 방식

=남측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일 것

=‘한국인 특화 상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아이디어

=단, 북한이 남한 여행객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방문이 가능함

→지금껏 북한이 남한 국민에게 사증을 발행해준 선례가 없음



남북평화관광의 방법론



<북한 개별관광>

▶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남한을 먼저 구경하고 북한으로 여행을 가는 방식.

→남북한과 제3국 여행사가 남북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과 행정 협력도 필요

→안되면 항공기 이용으로도 가능.

가격대가 비싸지고 의미가 퇴락.

인바운드관광의 파이를 넓힐 수 있는 방안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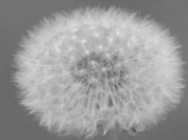


<북한 개별관광>

▶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배경

- ▲국내의 북한 방문 수요 충족
- ◇고령화한 이산가족에게는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고성군의 경제적 피해액만 4,300억 원
-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간 확보
-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

남북 평화관광의 방법론



<북한 개별관광>

▶ 북한 개별관광, 어떤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

- ◇미국이 대북제재의 균열을 우려하면서 호응해주지 않고 있다
-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 ◇북한이 개별관광에 화답할지 여부도 불확실
- 개별관광은 벌크 캐시가 없다---매력 부족???
- ◇우리 여행객이 북한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
- ◇일단은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가야 할 것
- 중국을 통한 북한 개별관광은 당분간 어렵다
- ★금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대화협상 진전의 여지 생겨 ----향후 추이 주목
- ★북한 개별관광이 경색된 남북-북미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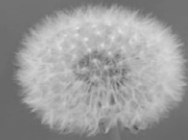
남북평화관광의 방법론



< 통일부 2020 이후 정책 목표 >

- ▶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 ▶ 'DMZ 평화의 길' 탐방 재개
-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재개
- ▶ 북한 개별관광 추진
- ▶ 남북 공동행사, 스포츠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 북한과 협력 사업 재개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 ▶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 통일교육 실시
- ▶ 안정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과 제도 정비

남북평화관광의 방법론



◆통일부 한미정상회담 후속 추진 조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대화채널 복원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당장 할 수 있고 남북이 가장 필요한 것

→코로나19 등 보건협력, 자연재해 등 재난대응 및
환경협력, 식량 등 민생협력

=그간 계속 준비해온 분야를 중심으로 상황 고려하며
남북협력 방안 구체화 할 것

#남북협력 추진 단체들 "지자체중심 교류협력 강화" 주장

한반도관광의 전망과 솔루션



◆ 개별관광 시작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 ▶ UN대북제재 완화와 제반 조건 해결 필요
- ◇ UN대북제재에서 대량현금(Bulk Cash)의 이전을 금지
- =제재 완화 전에는 관광 재개에 어려움
- ◇ 북미 협상 교착 풀려야
- ◇ 5.24조치의 해제도 관건
- =천안함 사건으로 취해진 5.24 조치
- UN 대북제재와도 연동
- ◇ 3대 선결조건의 해결
- = 과거 우리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요구했던 3대 선결조건 미해결 상태
- ▶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 ▶ 관광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 ▶ 금강산관광 지구 관리기구 부재

<한반도 관광 활성화의 해법?>



◆ 대안제시 & 과제

지속가능한 남북관광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솔루션은?

- ▶ 남북관광활성화,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 ▶ 남북관광진흥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필요.
 - ▶ 남북관광 활성화 전담기구 추진
 - ▶ 콘텐츠 상품화를 통한 상시성 확보
 - ▶ 스포츠관광 활성화
- 스포츠는 남북교류에 지속적인 기여.
=2032남북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 ▶ 북한도 국가라는 사실을 유념
 - ▶ 전략적 대승적 사고로 남남갈등을 극복하자
 - ▶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문제다! 미국(UN사) 설득에 최선을 다하자



Thank You !

남북 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





사단법인 남북평화관광협의회
Association for inter-Korea Peace Tourism

성공적인 남북 평화관광 위한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상진 교수

2021. 6. 15(화)

서울관광플라자 세미나실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안) “남북 평화관광을 이루는 길(협약안)”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 평화관광의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 통일부, 문체부, 유관기관, 학계 및 업계, 국민 등과 함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추진배경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평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현재 교착 상태임
- 북한 개별관광, 접경지역(DMZ, JSA) 관광 등의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문제는 한반도의 가장 저변에 있는 문제

평화 창출, 평화 유지

자유로운 상호 방문, 이산가족문제,

상호 존중, 인정, 통일의 초석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거버넌스(Governance)란?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분단은 한반도 국토만 2개로 나누어 버린 것이 아님

사람, 가족, 공동체 등 모든 것

역사, 민족의 정신을 왜곡하고 갈라놓음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세계관, 인간성...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행의 씨앗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Peace Tourism

- 1948년 남북 분단
- 남북한 양측의 정치인들이 남북교류를 통한 북한의 개방해보려 많은 노력을 했으나 진전이 없었음. 정치 · 외교 · 군사 · 양측 지도자 모두 분단을 활용

故 정주영 현대그룹

휴전선을 없애 보려는 노력 - 동부지구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육로관광이 Target

금강호 유람선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 실현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2008년 3월 17일 / 승용차 관광 실시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9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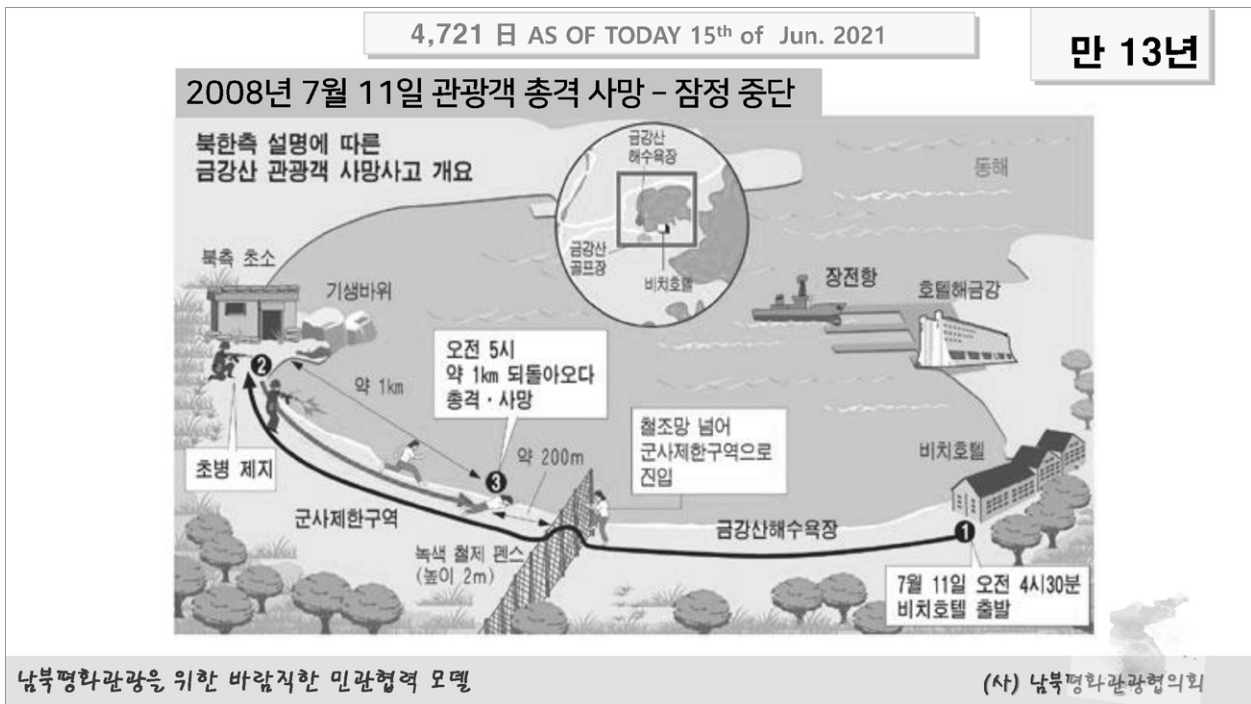
2008년 3월 17일 / 승용차 관광 실시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10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 간의 합작, 단독 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 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단순 인적교류, 교역은 제외)

사회문화협력사업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 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민간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단순 긴급구호는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분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행하고 있으며, 북한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합니다.

정부 추진의 북한 개별관광

1. 이산가족,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2. 한국인의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3. 외국인의 남북연계관광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신변 안전 장치는?

방송일 : 2020.01.20



TV CHOSUN
뉴스9



통일부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걸릴 것이 없다”

통일부 당국자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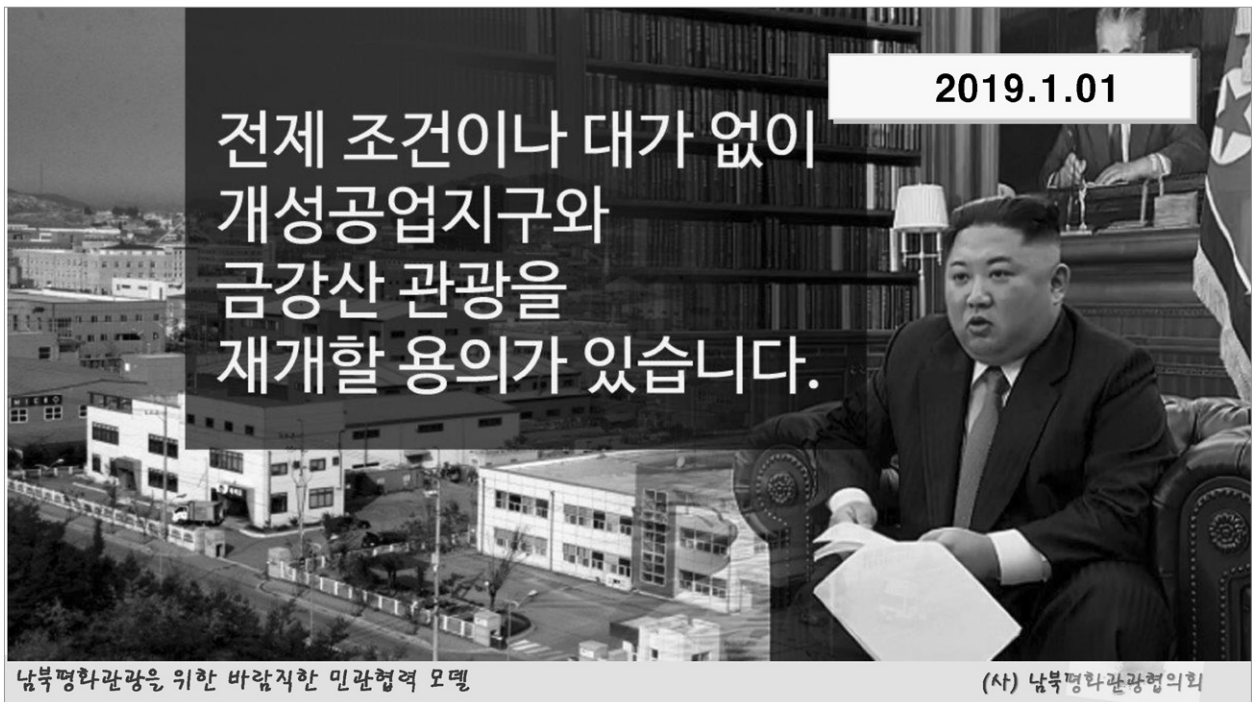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북한개별관광 실시 선결조건

- 북한의 동의 (코로나사태 진정 이후, 개별관광비자, 관광증, 통행증 발급)
- 신변안전 보장
- UN 사령부 인가
- 중국 등 소재 제3국 여행사 (중국, 영국, 뉴질랜드 여행사 등)의 동참
- 여행상품 가격에 대한 저항
- 북한개별관광 참가자들의 기회 요인 포기
- 미국의 묵시적 인정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02.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건 - 대북제재(2)

● 대북제재의 정의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지 등을 목표로 북한에 정치·경제·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압박
- 국제사회(UN, EU 등), 개별국가(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 UN안보리는 북한의 WMD 개발 등을 규탄하고 그 지속적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의(resolution)를 통해 회원국에 대북제재 이행 요구
- 북한과의 △수출입 △금융거래 △화물검사 △해운 △인적교류 등 제한

02.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건 - 대북 제재(3)

● UN 대북제재(1)

- (기본 성격)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중단
- (금수품 확대)
 - △대북 수입 금지품 : 금, 희토류, 석탄, 철, 철광석, 해산물, 섬유, 조업권, 식료품, 농산물, 기계류, 전기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 동상 등
 - △대북 수출 금지품 :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원유 연 400만 배럴(52.5만 톤) 및 정제유 연 50만 배럴(6.56만 톤) 제한 등
- (경협사업 금지) 신규·기존의 북한과 합작·합영사업 금지
- (해외 북한 노동자 고용허가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의 복귀
- (금융지원 금지) 대북 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 (금융거래 금지) 회원국 은행의 북한 내 지점·계좌개설 금지, 북한 은행의 회원국내 지점·계좌개설 금지
- (대량현금 주의) Bulk Cash가 안보리 금지활동 회피 목적으로 사용 주의
- (운송제한, 검색강화) 제재 선박 입항 금지, 북한 선박 소유·임대·운영 등 금지 북한 선박과 관련 금지, 북한행 화물 검사 의무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출처 : 남북경협아카데미 강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병도 부장 강의 PPT

(사) 남북평화관광협회의

02.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건 - 대북 제재(4)

● UN 대북제재(2) - 결의 현황(1)

구분	배경	주요내용
825호 (1993.5.11)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1993.3.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핵사찰 수용 촉구
1695호 (2006.7.15)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7.5.)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지원 이전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
1718호 (2006.10.14.)	1차 핵실험 (2006.10.9.)	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1718위) 설치
1874호 (2009.6.12.)	2차 핵실험 (2009.5.25.)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
2087호 (2013.1.22.)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12.12.)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Catch-all 성격의 대북수출 통제 강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2094호 (2013.3.7.)	3차 핵실험 (2013.12.12.)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확대 금융거래 강화(금)의 위반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금지 등 Bulk cash* 제공 금지(Bulk Cash 할도 규정은 없음)
2270호 (2016.3.2.)	4차 핵실험 (2016.1.6.) /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2.7.)	핵미사일의 구경 협력 금지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대상 선박 또는 불법 활동연루 의심 선박 입항 금지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 사무소의 60일 내 폐쇄 북한산 광물(석탄, 철, 금 등) 수입 금지 조치 도입

02.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건 - 대북 제재(5)

● UN 대북제재(3) - 결의 현황(2)

구분	배경	주요내용
2321호 (2016.11.30.)	5차 핵실험 (2016.9.9.)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외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내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도입
2356호 (2017.6.2.)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2017.5.14.)	제재 대상 지정 확대
2371호 (2017.8.5.)	탄도미사일 발사 (2017.7.4., 7.28.)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회원국의 등 선박 입항 불허 의무 외환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북한 선박,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북한산 석탄 및 농산물, 해산물 수출 금지
2375호 (2017.9.11.)	6차 핵실험 (2017.9.3.)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2397호 (2017.12.22.)	화성-16형 발사 (2017.11.29.)	영토 및 영해에서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대상 나포, 검색, 억류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대북 유류 공급 제한(원유 : 400만 배럴/1년, 정제유 : 50만 배럴/1년) 북한의 식도료,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등 HS CODE(72*89)에 따른 수출 금지 조업권 거래 금지 명확화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출처 : 남북경협아카데미 강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병도 부장 강의 PPT

(사) 남북평화관광협회의

02.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건 - 대북 재재(7)

우리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 ① (5.24 조치) 남북교역 중단, 신규대북투자 금지, 방북 불허,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등
 - ② (개성공단 중단) 북한 근로자 임금의 WMD 개발 전용 문제로 가동 중단
 - ③ (16.3.8 조치) 금융제재 대상 지정(단체 30개, 개인 40명), 북한 기항 180일 내 외국선박 국내입항 금지 등
 - ④ (16.12.2 조치) 금융제재 대상 확대(단체 35개, 개인 36명), 북한 기항 1년 내 외국선박 국내입항 금지 등
 - ⑤ (17.11.6 조치) 금융제재 대상 추가 지정(개인 18명) * 문재인 정부 첫 조치
 - ⑥ (17.12.11 조치) 금융제재 대상 추가 지정(단체 20개, 개인 12명)
- ※ 우리 독자제재 대상 : 총 89개 단체, 109명(2019.11.27 기준)

02.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건 - 대북 재재(8)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 ① (포괄적 제재) 제3국인 포함 직·간접적 대북 거래 관련자 제재
 - 북한 건설·에너지·금융·어업·정보기술·제조업·의료·광업·섬유·운송 관련자
 - 북한의 항구·공항·육로출입구 소유·통제·운영 관련자
 -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을 위한 수익 창출 활동 관련자
 - 북한과 재화·서비스·기술 수출입 및 북한 노동자 송출 관련자
 - 제재 대상을 위해 금융·물품·기술·서비스 지원·후원·조력 관련자
 - 북한 기항 선박·항공기의 180일간 미국 입항·기착 금지
 - 제재 대상을 대신해서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 제재
- ② (16.6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 지정) 북한과의 달러거래 금지
- ③ (17.11 테러지원국 지정)
 - 최혜국대우 등 무역특혜 금지, 원조 제한·금지, 美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및 국제기구 차관 공여 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등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출처 : 남북경협아카데미 강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병도 부장 강의 PPT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2018. 4. 27

판문점 선언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24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북한의 관광 개발



원산 - 금강산 관광구역

국제관광구역을 MICE 센터로 개발

관광, 무역, 물류 중심의 개발



김정은 2013 경제개발 및 핵무장

- 스위스 유학
- 관광을 통한 국가 경제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
- 원산/마식령 스키장을 금강산 관광구역과 연계하여 개발
- 백두산, 나선 및 철보산 개발

북한, 변하기 시작하다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미워도 다시 한번 2019.09.22 Vladivostok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2019.10.22

금강산관광사업이 우리 민족사와 통일위업에 이바지한 공적은 실로 거대합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처음부터 금강산관광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현 보수당국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자마자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을 기회만 엿보다가 지난 2008년 7월 우발적으로 발생한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온 금강산관광이 파탄되고 오늘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보수정권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남녘겨레들의 소중한 추억이며 희망인 금강산관광은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측과의 신의를 귀중히 여기고 금강산관광사업을 손잡고 잘 해나갈것입니다.

오늘 금강산관광사업은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4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용에 대한 정령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5월 31일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채택하였습니다.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김정은 금강산관광 비판..."남측 시설 썩 들어내야" / YTN

YTN

2019.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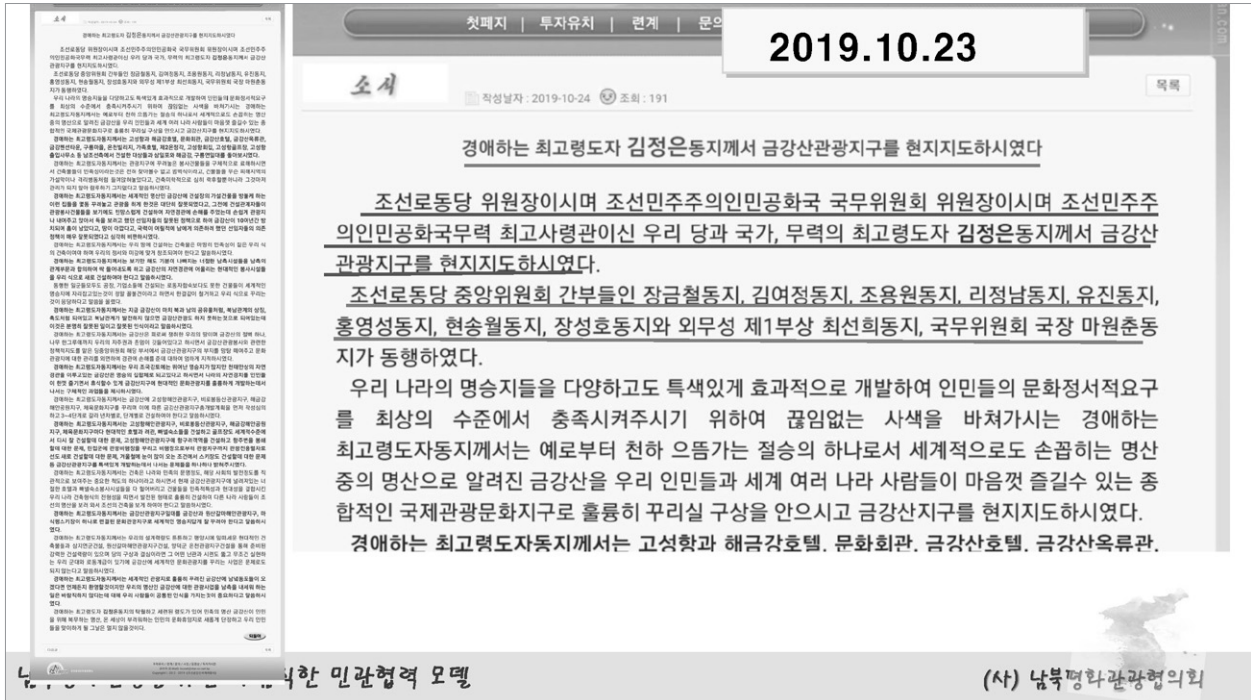
굿모닝
와이티엔

김정은 금강산관광 비판 "南시설 들어내야"

YTN
NEWS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2016 v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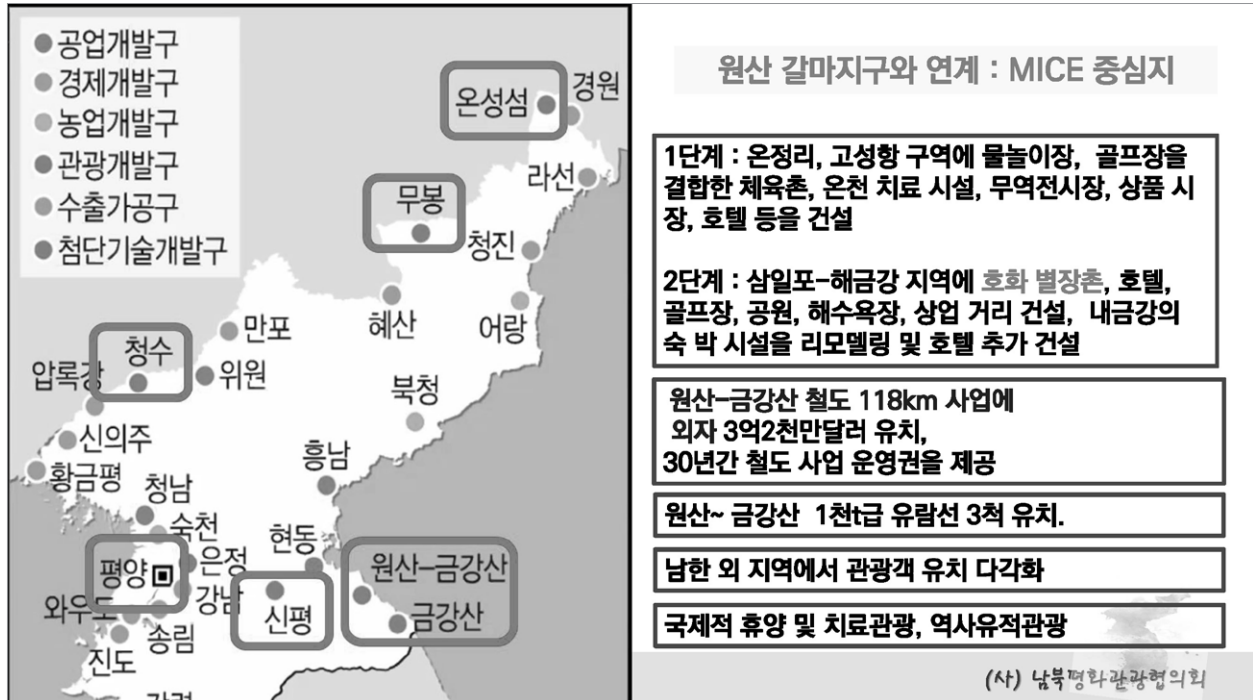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 북한은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중단된 이래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금강산관광재개를 강하게 주장해 왔음.

* 김정은위원장은 집권 이래 관광산업을 통해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하였고 특히 2018년 이래 3차례의 남북정상만남 이후에는 그 의지가 더욱 강해 졌으며 2019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라고 발표하여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선의의 모든 카드를 내놓았다 할 수 있을 것임.

나라의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

공화국정부는 봉사구역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관광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정부에서는 나라의 국토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광 및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아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알려져있는 조선에는 자연지리적으로 관광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환경이 마련되어있으며 이 관광자원은 적은 투자로 개발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을 비롯한 명산들과 구룡폭포, 아선남폭포, 박연폭포를 비롯하여 조선은 어딜 가나 명승지들이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어 바다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을 비롯한 하천관광자원과 동식물관광자원, 온천과 악수 등이 조밀하게 분포되어있을뿐아니라 역사유적물들도 대단히 많다.

공화국정부의 관광자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에 의하여 산악관광자원들과 바다관광자원들은 그 환경이 매우 깨끗하며 역사관광자원과 문화관광자원들은 원상 그대로 유지보호되고있다.

최근 공화국정부는 관광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광업을 기본경제부문으로 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켜나가는 관광개발구를 개발하고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함경북도 온성성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청수관광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를 내올데 대한 법령이 선포되고 그 개발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산악관광자원과 해양관광자원이 밀집되어있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국가적힘을 집중하면서 여러 도들에 있는 관광개발구들을 매개 개발구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있다.

국가적으로 관광개발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독립적인 국가관리기구체계를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세우고 개발구들에 대한 토지정리 및 하부구조건설과 관광자원개발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있다.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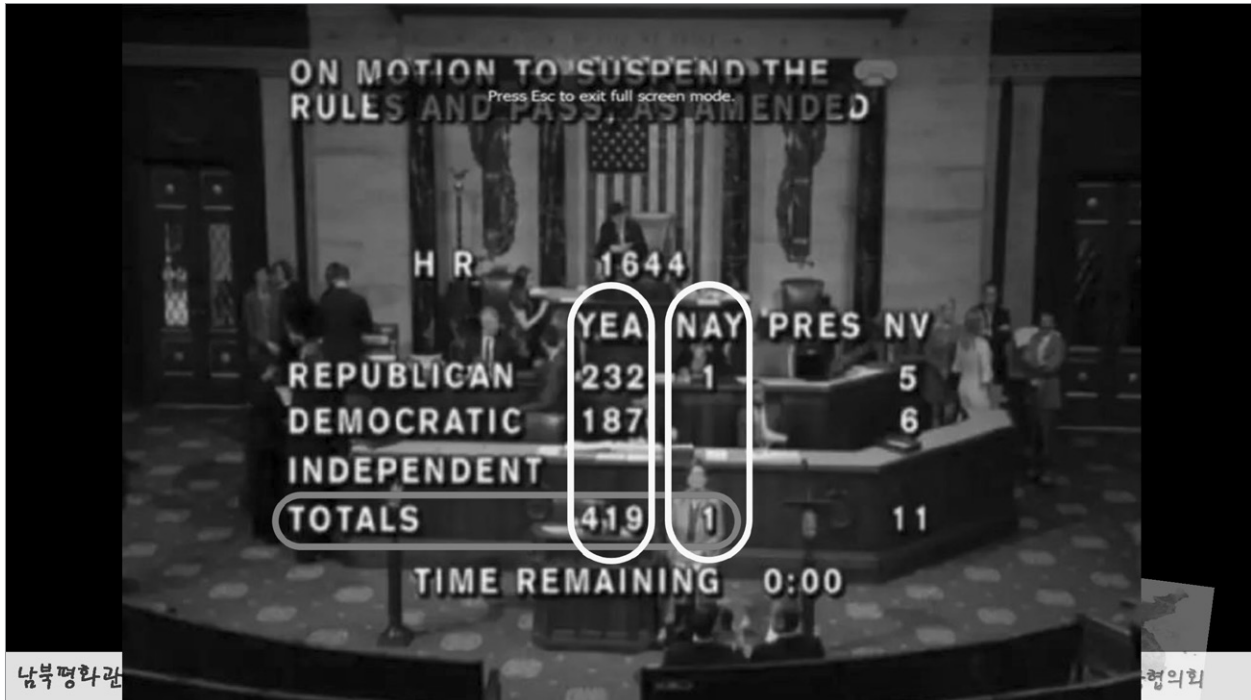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H.R. 1644 – 115th Congress (2017~2018)

- purchased or otherwise acquired significant quantities of coal or iron in excess of Security Council limitations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 purchased or otherwise acquired significant types or amounts of textiles from such government;
- facilitated a significant transfer to such government of funds or property that materially contributes to a violation of an applicab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facilitated a significant transfer to or from such government of bulk cash, precious metals, or gemstones;
- sold or otherwise provided to such government significant amounts of crude oil, condensates, refined petroleum, other types of petroleum or petroleum by products, liquefied natural gas, or other natural gas resources, except for fuel oil, gasoline, or diesel fuel for humanitarian use;
- engaged in or was responsible for online commercial activities of such government, including online gambling;
- purchased or otherwise acquired fishing rights from such government;
- provided significant telephonic, telegraphic, telecommunications or other data services into or out of North Korea in excess of services needed for humanitarian or diplomatic purposes;
- purchased or otherwise acquired significant types or amounts of food or agricultural products from such government;
- engaged in or was responsible for the exportation of workers from North Korea in a manner intended to generate significant revenue;
- conducted significant transactions in North Korea's transportation, mining, energy, or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or
- except as approved by the Security Council and other than through a correspondent account, facilitated the operation of any North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 The Department of State shall report to Congress periodically regarding foreign compliance with curtailing North Korea's arms trade.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램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

- 미국 국익을 최우선 ->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 관계 개선 여부?
-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춘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으로
관여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 또는 몇 개월 동안 북한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는 행동을 지켜보겠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문제 총괄 담당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2009~2013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Pivot to Asia,
Rebalance to Asia 설계자. 당시 한국을 1년에 10회 정도 방문
- 동아태차관보 : 성 김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 / 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 대북특사
2011~2013 주한미대사, 2014년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부차관보
“문제는 대북 제재가 아닌 북한의 도발이다.”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

“미국 ‘중국·북한 위협’ 초점...‘도발 완화’ 외교 우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우리의 국방 예산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커지는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



북한이 무기개발활동 자금을 조달할 수입 창출을 위해 국제 금융망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함으로써 제재를 위반한다

“가장 큰 위협 ‘사이버 분야’...북한 등 ‘불량정권’ 억제해야”

폴 나카소네 사이버사령관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불가

미국 : 북한 하기에 달려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미국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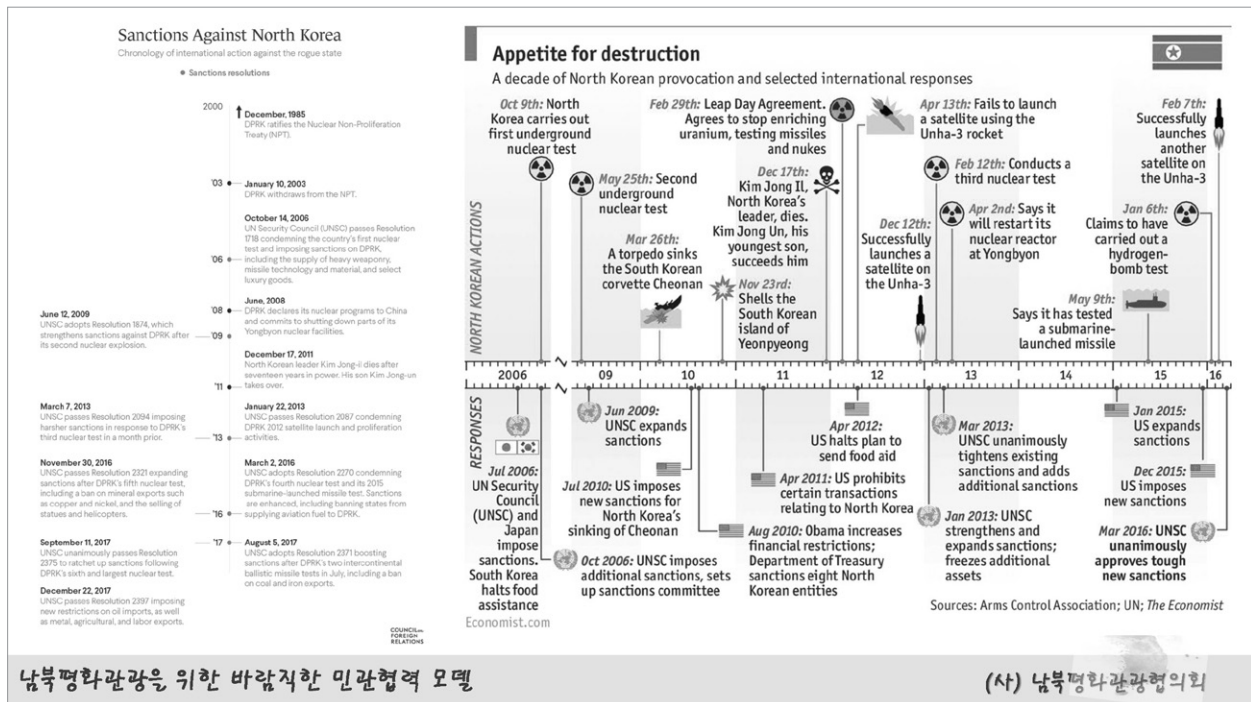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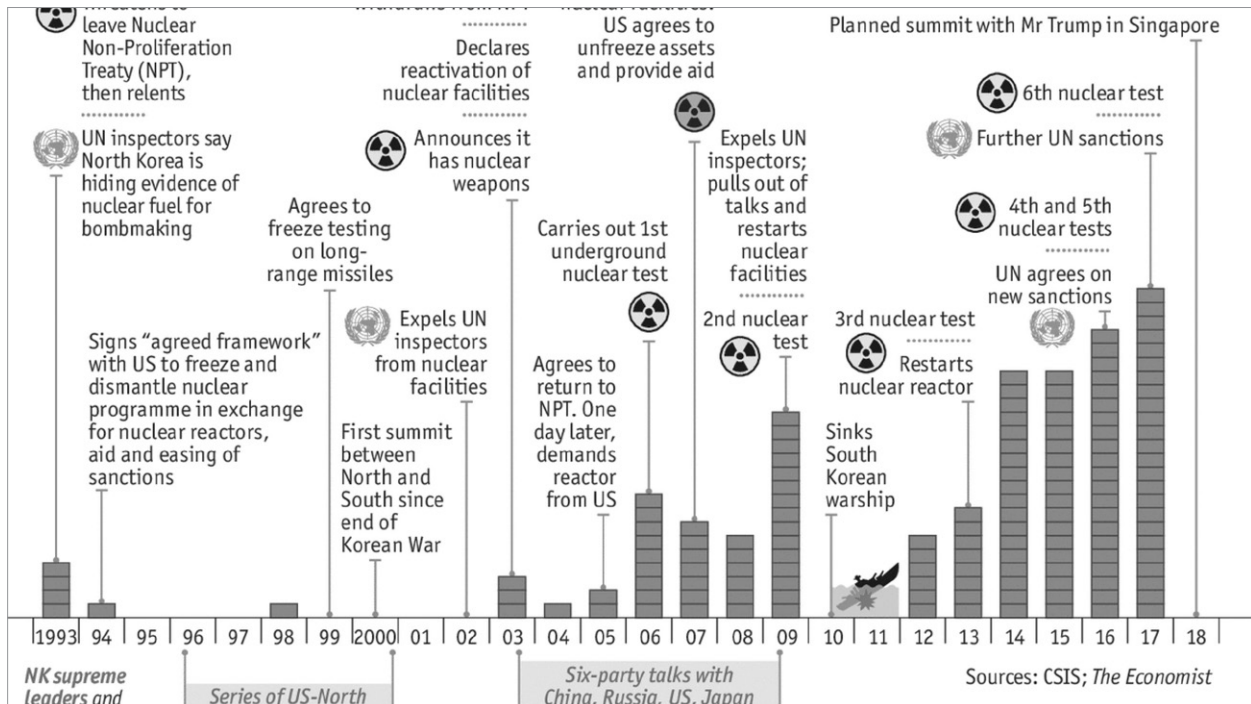
정치·안보미 의회 조사국 "바이든 향후 대북제재 완화, 법적 요건 문제로 복잡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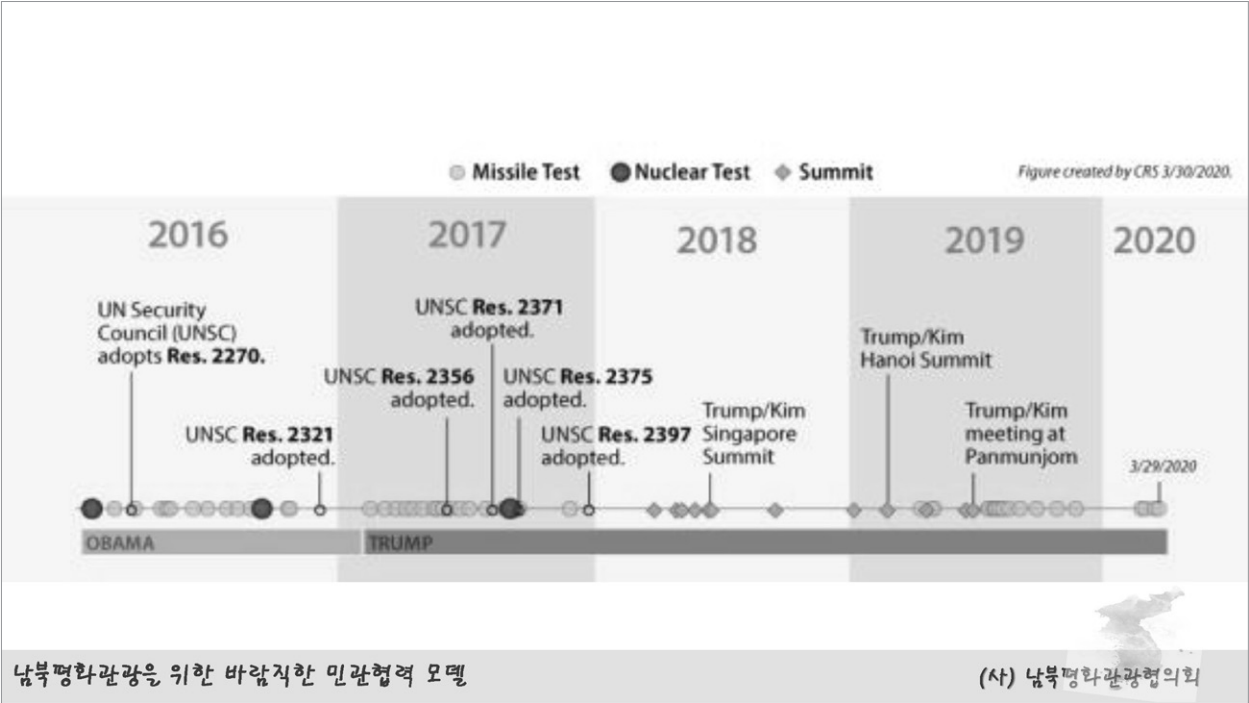
기자 이조은
2021.5.8 4:00 오전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rs-biden-nk-sanctions>

남북평화관광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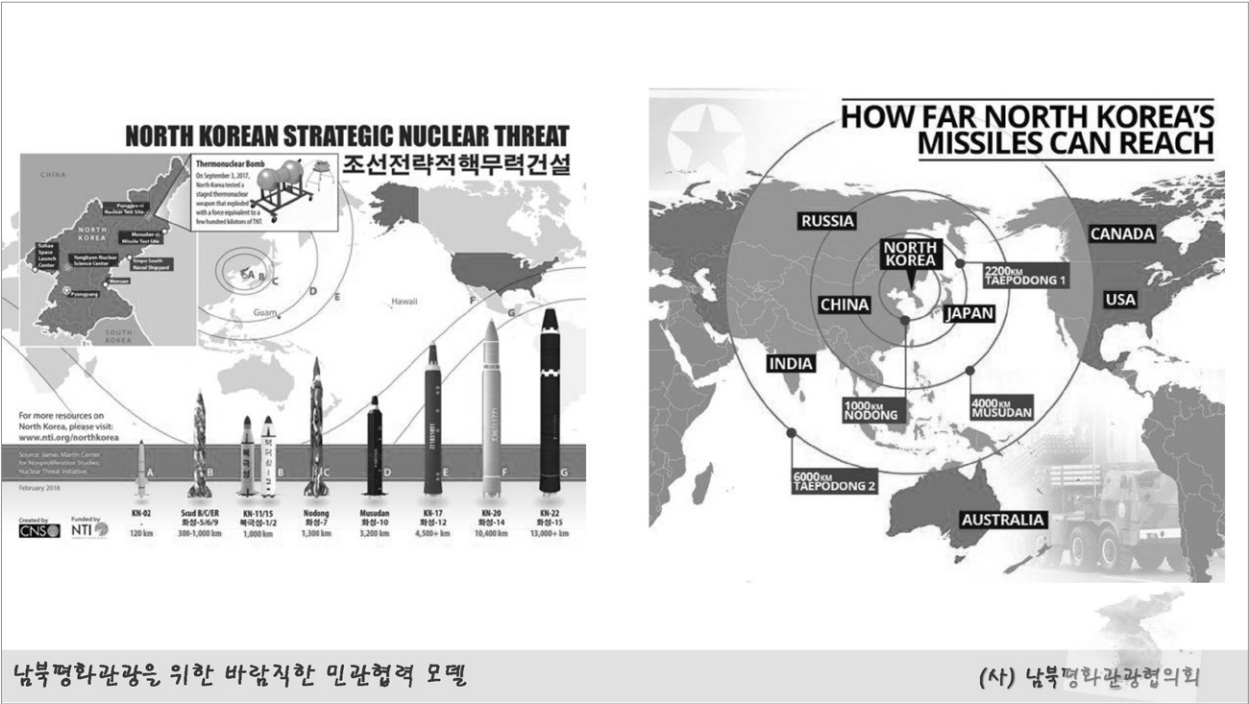
남북 평화관광을 이르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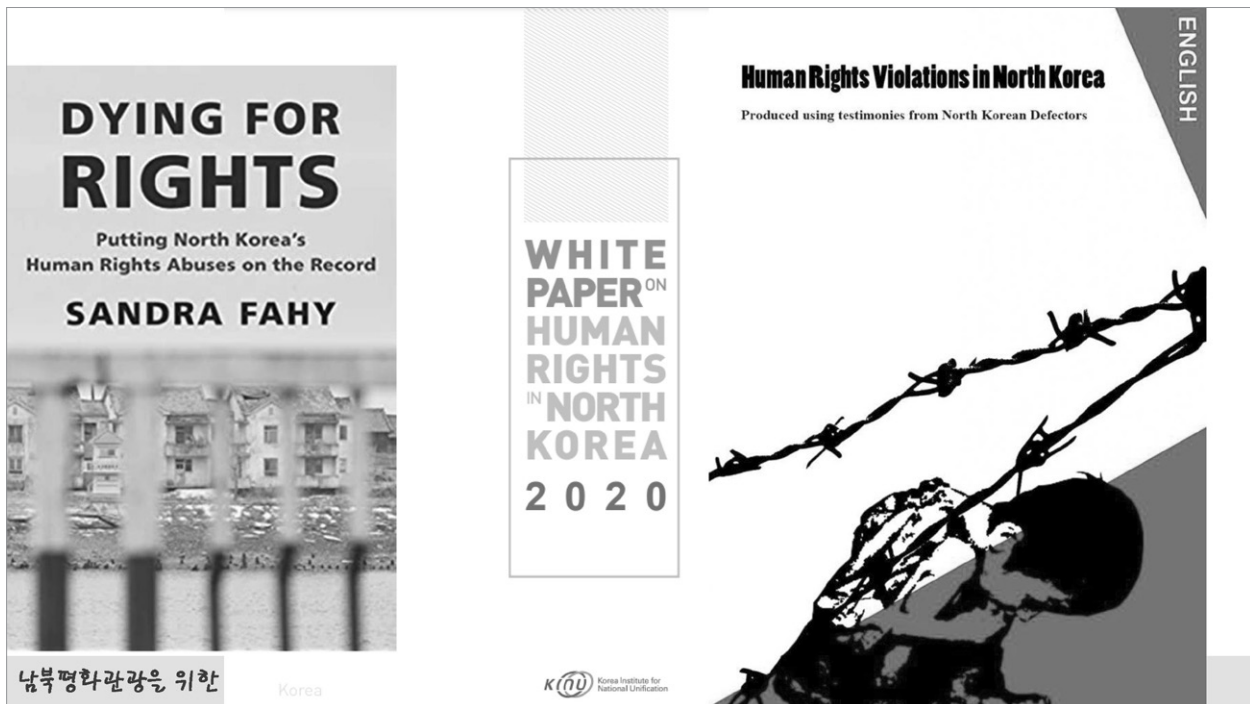
남북 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 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8차 당대회 언급 내용(2021년 1월)

- 남북관계 해결에 있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적시함.
- “조선반도의 평화 · 군사적 인정을 보장한데에 대한 북남의 이행” 임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으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 ”

북한 : 남한 하기에 달려있다

남북평화관광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북한관광을 장려하고 있음. (년간 300~500만 명 관광객 송출 계획)
- 코로나 이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코로나 사태 이전 시점까지는 중국 세관은 중국인의 북한 관광 시,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소지품을 모른 채 하고 있었음. (1인당, 60Kg / 6,000CNY 이내 물품)
- 남 · 북 · 중 연계 관광의 실현은 3국 모두에게 이익
- 남한의 입장에서는 남 · 북 · 중 회랑을 통과하는 관광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한반도관광 실현과 반도성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임

북한 : 남한 하기에 달려있다.
미국 : 북한 하기에 달려있다.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중, 시진핑의 지시로 조선관광에 나서

서울-김지은 xalis@ifa.org
2019-09-24

Tweet Share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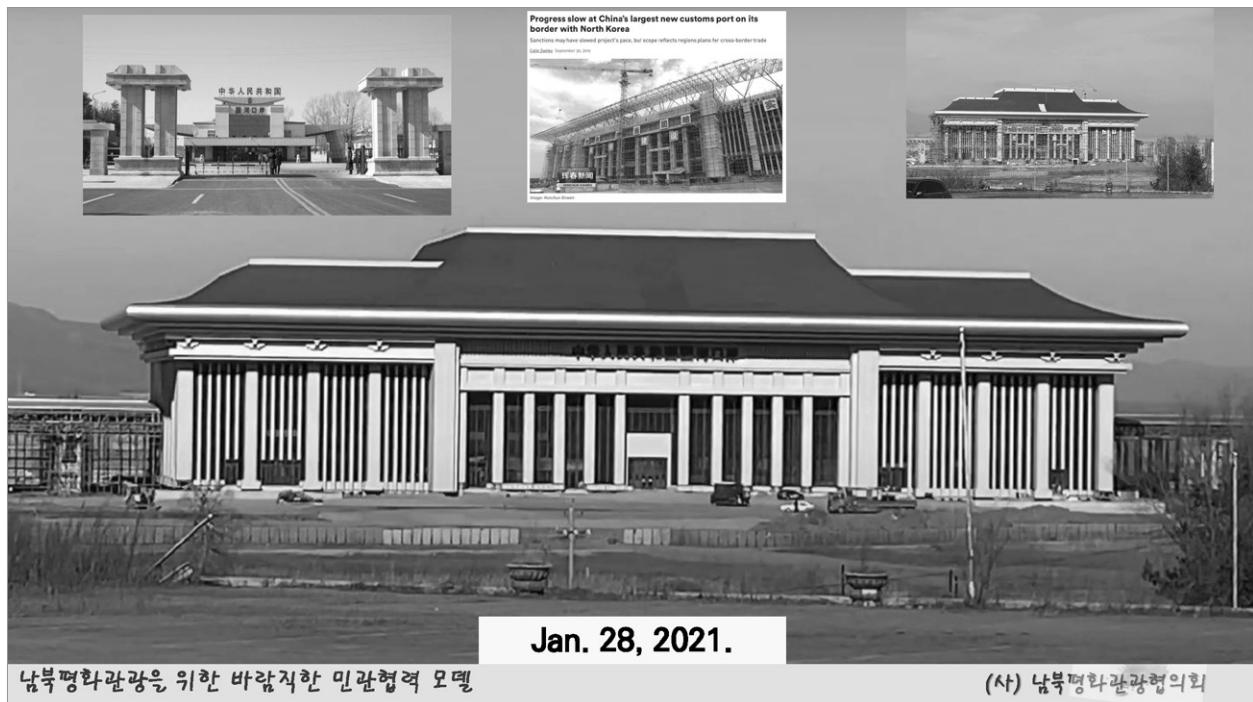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평화관광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

- 북한은 현대와의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유효성 학습
- 북한은 남한의 관광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배우려 하고 있음.
- 민간 부분의 관광을 통하여 비핵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중앙정부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남북평화관광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

-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및 자원 지원 (물적, 인적 자원)
예 : 제주도의 감귤 및 당근 지원, 제천시 사과농장, 온정리 인민병원, 고성 온실 박막 지원 등
- 평양관광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교류 (교재, 부자재 등)
- 코로나 19의 종식을 앞 당기기 위한 노력 (미국의 백신 지원?) OSBL
- 남북관계에 있어서 관광은 마중 물 + 수도꼭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평화관광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

- 중국, 러시아 소재 제3국 여행사의 동참 유도를 위한 여행업계의 역할
- 중앙정부의 지원 (중국 : 복수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or 개별관광을 위한 특수 비자, 관광증, 통행증 등)
- 여행상품 가격에 대한 저항 최소화
- 북한 개별관광 여행 참가자들의 기회 요인 포기
- 미국, UN의 제재 완화에 대한 민간단체의 활동 (반크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KATA,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등)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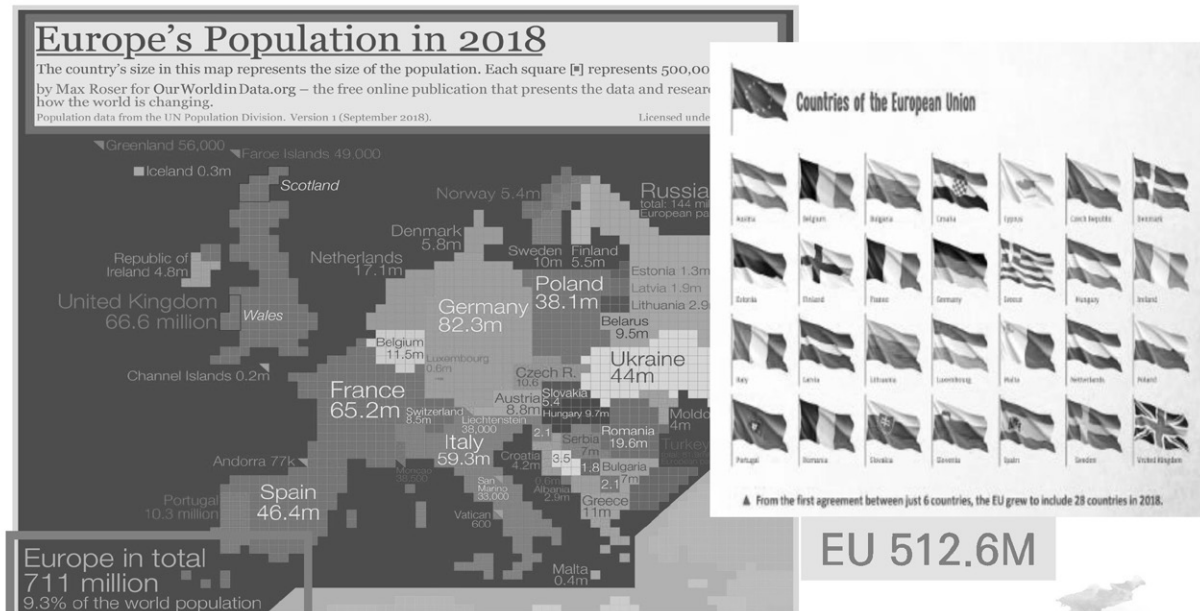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평화관광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

- 업계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여행업계, 국제기구, 외국기업 등의 거버넌스 구성. 리스크 분산
- 남북평화관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이익실현 방법의 구체화
- 거버넌스 참여자로서 기본적인 마중물 운영 자금 확보
- 거버넌스 총괄기획, 운영주체
-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 및 연구를 통한 거버넌스 별 능력 함양
-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것 부터 실시(남북 거버넌스 원격 회의)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中·日·러 연결된 관광 허브로... 중국인 관광객만 1300만명 몰릴 것

《7》통일한국은 관광 대국

북방이 연계 관광 중심지로

남북 통합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대적 관광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한반도는 더 이상 '최후의 분단 국가'가 아닌, '평화와 관광의 상징'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일본·미국·러시아 등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더 이상 '동토(凍土)의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 관광의 허브'로 변신할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 관광객 연 1280만명 몰릴 것
통일국 헌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10년쯤 지나면 한반도를 찾는 관광객이 36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북한이 미개발 지역이 많아 생태 체험형 관광의 화제가 될 수 있다고, 남한·중국·러시아·일본·몽골 등 주변국과의 연계 관광지로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폐쇄 국가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 관광 수요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채널 고립 노선을 택했던 쿠바도 1990년 관광 산업 정책을 쓰기 시작한 이후 75만달러에 불과했던 관광 수입이 1999년에는 17억8000만달러로 무

려 2300배가 증가, 쿠바 제1의 외화 수입원으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금강산은 원산·설악산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 벨트로, 해주와 개성군은 인천·강화도와 연계해 서해안 벨트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의주는 중국 단둥, 백두산은 동북3성, 나진·선봉은 러시아와 연해주 및 아무르강 생태관광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나진과 원산에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이 정박함으로써 사베리아 횡단 열도(TSR)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관광 상품과 연계될 수 있다.

중국 관광객도 대거 유치할 수 있다. 2024년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해외 관광객 중 적잖은 수를 남북 연계 관광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작년 428만명에서 2024년 128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운문의 나라'를 공급해온 미국, 유럽 등 서구인들의 여행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60만명 고용 유발 효과도

남한 관광객의 북한 방문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 및 관광 수익 적자 개선 효과도 볼 것으로 분석됐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내국인 해외 관광객은 1383만명인데, 통일로 인해 출입·체류·신변 안전 등의

폐쇄했던 북한 관광 수요 커

쿠바도 개방된 관광수입 2300배

DMZ는 한국인 엘로스본 변신

국민들 해외여행 대체 효과

관광수지 적자서 흑자로 전환

남북 60만명 고용 유발할 것

문제가 모두 해소되면 이 중 최소 30% (415만명) 정도는 외국 대신 북한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1인당 1188달러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53억4600만달러의 관광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작년 관광수지는 32억5800만달러 적자였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20여달러 이상 남는다는 것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 관광팀 3600만 명 시대가 올 경우 남한에 47만5500여 명, 북한에 12만1908명 등 총 60만 명에 가까운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 산업의 GDP 기여 효과도 북한은 11.8%, 남한은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DMZ는 한반도의 엘로스본
한반도 전체 면적의 0.41% (907㎢)를 차지하는 DMZ는 생물 다양

성과 화귀 동식물 보존 등 그 생태적 가치로 인해 '한반도의 엘로스본(미국 최대 국립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도 과거 동·서독 접경지를 따라 '그뤼네스 반트'를 조성,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DMZ는 통일 이후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면서 각종 국제 회의의 유치지는 'MICE 산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이벤트·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통틀어 말하는 대규모 관광 서비스 산업으로 일반 관광보다 부가가치가 1.63배가량 높다.

전문가들은 통일 이전이라고도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북한의 숙박시설은 1만1500여실 정도이고 그중 외국인 전용 호텔은 5000여실에 불과하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 8곳에 금강산 관광 지구와 같은 레저단지를 건설할 경우 1곳당 5여달러씩 총 40여 달러 정도의 투자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관광산업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원가 부담이 낮고 수익률이 높아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대명 기자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회

<북한에 막히면 대한민국은 섬나라>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회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

평양, 원산, 개성, 문산, 서울, 동해선, 경의선, 금강산, 고성, 제진, 양양, 속초, 강릉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울란바토르, 서울, 부산

유라시아 횡단열차 승차권 Trans-Eurasia Railroad Ticket

부산
Busan

2022년 08월 15일 12:00
2000열차 6호차 15석

▶

베를린
Berlin

615,000원
11,971 km

경유(Via) 강릉(Gangneung)-제진(Jejin)-원산(Wonsa)-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이르쿠츠크(Irkutsk)-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예카테린부르크(Yekaterinburg)-모스크바(Moscow)-바르샤바(Warsaw)

일본에서 출발한 손기정, 베를린 도착한 방법은..

YONHAP NEWS AGENCY Asahi Shinbun

연암뉴스

사단법인 남북평화관광협의회
Association for inter-Korea Peace Tourism

성공적인 남북평화관광 위한 거버넌스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상진 교수

감사합니다

남북평화관광을 위한 바람직한 민간협력 모델

(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